

WEEKLY BUSINESS ISSUE

INSIGHT FOR BUSINESS LEADER

MAXIMUM EXPOSURE

ANNUAL SURVEY RANKINGS THE SUPER BOWL • COACHELLA • THE CMAS • ITUNES • FALLON • WALMART • Z100 • THE GRAMMYS

100+ PLATFORMS THAT MOVE MUSIC NOW

Billboard

500,000,000 PSY FANS CAN'T BE WRONG

HOW THE K-POP BREAKOUT
STAR HARNESSSED THE
POWER OF YOUTUBE, ELLEN,
SNL, THE TODAY SHOW AND
MORE TO BECOME MUSIC'S
NEW GLOBAL BRAND

PLUS: INSIDE K-POP'S
MUSIC FACTORIES



2012-40호

2012.10.27



한양대학교
HANYANG UNIVERSITY

경영전문대학원

Business Issue Weekly Ind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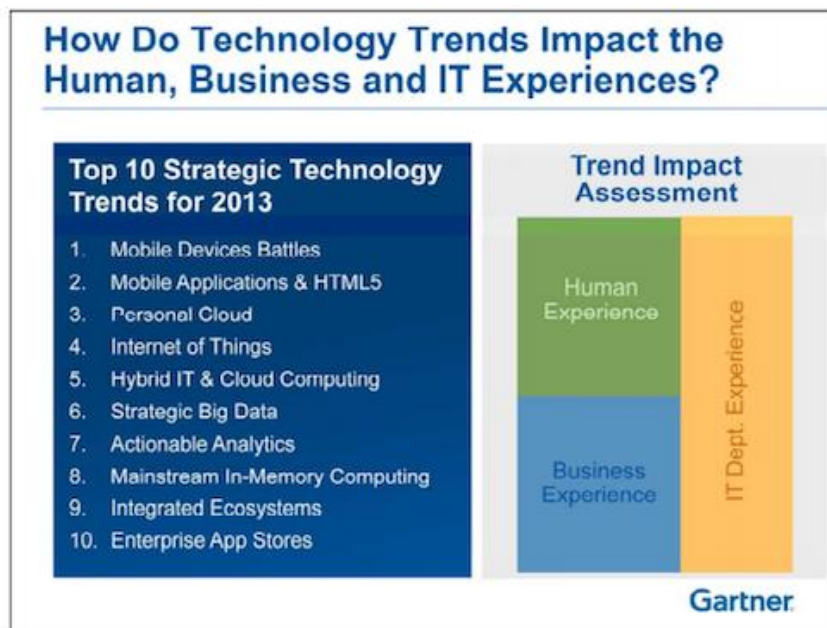
제 목	출 처	게시일자
가트너가 꼽은 '2013년 10대 전략기술'	블로터닷넷	2012.10.24
볼수록 알쏭달쏭한 KT의 '프리미엄 CDN'	블로터닷넷	2012.10.26
삼성전자 실적 고공행진...무선사업부 매출 30조	한국경제	2012.10.26
"블랙먼데이 사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조선일보	2012.10.18
KT 애플, 타이니팜과 손잡다	매일경제	2012.10.26
500 스타트업 대표 "스타트업, 카피캣이 제일 위험"	전자신문	2012.10.26
미국, 중국 때리기 멈춰야 세계 경제 살아난다	중앙일보	2012.10.26
한화, 태양광 세계 3위 기업으로	중앙일보	2012.10.26
中 최대 희토류 업체, 수요 급감에 생산 중단	전자신문	2012.10.25
애플 4분기 실적 발표 "보유 현금만 무려 133조원"	전자신문	2012.10.25
농심 라면에 발암물질 검출...회수조치 '비상'	한국경제	2012.10.25
EU, MS에 "이용자 웹브라우저 선택권 박탈" 경고	조선일보	2012.10.25
태블릿 PC, 전자책 단말기로 매력 있나	블로터닷넷	2012.10.25
유스트림코리아 "KT와 함께 전세계 한류콘텐츠 유통 강화"	매일경제	2012.10.25
카카오톡 또 대박, 애니팡 성공 이어 이번엔	전자신문	2012.10.25
"경제민주화, 성장 잠재력 훼손" vs "재벌 경제력 집중 견제해야"	한국경제	2012.10.25
美, 中 투자에 잇달아 제동...통상마찰 격화	조선일보	2012.10.24
야후 3분기 실적, 시장 예측 상회	매일경제	2012.10.23
"글로벌 마셜플랜(Marshall Plan)'이 필요하다."	조선일보	2012.10.19
"전 세계 중산층 2050년까지 30억명 늘어날 것"	조선일보	2012.10.19

가트너가 꼽은 '2013년 10대 전략기술' 2012.10.24 불로터닷넷

시장조사전문업체 가트너가 2013년 주목할 만한 기술로 꼽은 10대 전략기술은 크게 '모바일, 빅데이터, 클라우드' 3가지 열쇳말로 압축된다.

데이브 시어리 가트너 수석부사장 겸 가트너 펠로우는 "이제 PC가 아닌 모바일에 주목할 때"라며 "모바일에서 발생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으로 퍼스널 클라우드가, 모바일 기기에서 발생한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선 빅데이터 분석이 중요해졌다"라고 설명했다.

올해 가트너가 꼽은 2013년 전략기술은 ▲모바일대전 ▲모바일 앱 & HTML5 ▲퍼스널 클라우드 ▲만물인터넷 ▲하이브리드IT&클라우드 컴퓨팅 ▲전략적 빅데이터 ▲실용분석 ▲인메모리 컴퓨팅 ▲통합 생태계 ▲엔터프라이즈 앱스토어 등이다.



'모바일, 빅데이터, 소셜'을 강조했던 2012년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저전력서버가 빠지고 빅데이터에 '전략적'이라는 키워드가 추가됐으며,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가 퍼스널 클라우드와 하이브리드 등으로 다양하게 바뀌었을 뿐이다. 그외 키워드는 순위에도 별반 변동이 없을 정도로 매우 흡사하다. 올해 가트너는 10대 전략 기술로 새로운 전략 기술을 제시하기보다는 2012년에 꼽은 전략기술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집중했다.

모바일 대전

2013 년은 윈도우 8 운영체제가 발표되 면서 iOS, 안드로이드, 윈도우 8 간 모바일 운영체제 경쟁도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가트너는 전했다. 2013 년에 출고될 태블릿 중 50%가 윈도우 8 운영체제를 탑재하고 나올 것이며, 이는 기업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데스크톱 운영체제로 윈도우가 앞서나가고 있는 가운데, 윈도우 8 이 장착된 스마트폰, 태블릿 그리고 데스크톱으로 이어진 삼각 편대가 완성될 것이란 전망이다.

모바일 운영체제 경쟁 심화 외에도 가트너는 모바일 사용자가 점점 증가하면서 사람들이 직접 제품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내다봤다. 가트너 분석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웹브라우저에 접근할 것이며, 2015 년이 되면 전체 모바일 기기 시장에서 80%는 스마트폰이 차지할 것으로 보았다.

모바일 응용 프로그램 및 HTML 5

가트너는 웹애플리케이션 제작 도구로 HTML5 를 주목했다. 2014 년까지 자바스크립트 중심의 애플리케이션 개발 환경이 중심이 되면서 HTML5 가 더욱 인기를 끌 것이란 분석이다.

퍼스널 클라우드

가트너는 구글 드라이브, 드롭박스 등 다수의 사용자가 자신의 모바일 기기에 정보를 저장하지 않고 퍼스널 클라우드에 정보를 저장하기 시작하면서, 모바일 기기가 PC 를 대체할 수 있게 됐다고 보았다. 퍼스널 클라우드는 웹에 위치한 한 곳에 정보가 몰리면서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기기로 접근해 자료를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가트너는 앞으로 개인용 클라우드에 기반한 웹서비스가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사물인터넷

이미 사물인터넷은 곳곳에 퍼져 있다. LTE, 근거리무선통신(NFC) 등이 퍼지면서 사물 정보를 실은 데이터가 사방에 널려 있다. 가트너는 2011 년 150 억개에 달하는 사물이 웹과 연결해 정보를 전달했으며, 2020 년이 되면 2 천억개가 넘는 기기가 웹과 연결해 정보를 보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하이브리드 IT 와 클라우드 컴퓨팅

지난해 클라우드 컴퓨팅이 단일 목록으로 존재했다면, 올해는 퍼스널 클라우드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나뉘어 소개됐다. 그만큼 가트너는 클라우드를 중요한 전략기술로 바라봤다.

가트너는 지난 세월 기업들이 자사 정보를 어떻게 하면 클라우드로 옮길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면, 이제는 얼마나 효율적으로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해 정보를 관리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보안이 중요한 데이터는 자체 데이터센터를 구축해 관리하고, 웹서비스 데이터는 퍼스널 클라우드를 통해 서비스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전략적 빅데이터

2012 년 빅데이터가 얘기가 빠지지 않았다. 2013 년도 마찬가지다. 다른점이 있다면 단순히 소셜 데이터를 긁어모아 고객데이터와 결합해 결과를 바라보기보다는 하둡과 같은 NoSQL 을 통해 비정형 데이터 그 자체를 분석하는 게 중요해졌다. 가트너는 기업의 데이터웨어하우스(DW)는 죽었다며, 새로운 데이터 분석 기술을 결합해 빅데이터 시대를 맞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용분석

그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게 실용분석이다. 가트너는 기존에 수집은 했으나 활용하지 못한 웹로그, 사내 잡다한 트랜잭션 데이터를 분석해 기업 전략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인메모리 컴퓨팅

빅데이터를 처리하려면 빠른 메모리도 필수다. 가트너는 성능과 응답시간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이번에도 인메모리 기술을 주목했다.

통합 생태계

이번에 처음 등장한 개념이다. 가트너는 어플라이언스 같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결합된 IT 환경이 인기를 끌 것이라고 내다봤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따로 애플리케이션 워크로드를 처리하는 시대는 지났다면 말이다. 가트너는 적어도 향후 5 년간은 어플라이언스가 인기를 끌 것이라고 전망했다.

엔터프라이즈 앱스토어

지난 2012년 가트너가 모바일 앱스토어가 주목 받았다면, 올해 엔터프라이즈 앱스토어의 등장을 눈여겨 봤다. 스마트워킹과 BYOD 근무 환경이 도입되면서 점차 기업이 사내 직원들이 사용할 응용프로그램(앱)을 제작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2013년엔 엔터프라이즈 앱스토어 시장이 활성화 될 것이라면서 말이다. 가트너는 2014년이 되면 상당수 직장인들이 엔터프라이즈 앱 마켓에서 앱을 내려받아 사용하고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불수족 알쏭달쏭한 KT의 '프리미엄 CDN' 2012.10.26 블로터닷넷

KT가 10월 2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프리미엄 콘텐츠 전송망(CDN)' 서비스를 발표했다. 아카마이 같은 전통적인 CDN 업체들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게 KT의 각오다. KT는 프리미엄 CDN 서비스를 두고 세계최초 서비스라는 말도 빼먹지 않았다.

한원식 KT 기업 제품 본부장은 "기존 경쟁업체들은 인터넷데이터센터(IDC)를 통해 CDN 서비스를 제공하나, 우리는 '스마트 노드'라는 캐싱 서버를 구축해 네트워크를 가입자단까지 접근해 CDN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며 "세계 최초의 '프리미엄 CDN' 서비스로 콘텐츠를 전송할 시 기존 자사 서비스 대비 2배 이상 빠른 내려받기 속도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전화국 사업을 하는 자사 특징을 살려 네트워크 가입자단까지 접근해 CDN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셈이다.

어찌됐든 고객입장에서 손해볼 건 없다. 유스트림즈 코리아 같은 동영상 콘텐츠 업체들에게는 오히려 매력적인 제안이다. 고화질 동영상 서비스를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건 좋은 일이니까.

아니다 다를까. KT 프리미엄 CDN의 첫 고객으로 유스트림코리아가 선정됐다. KT는 프리미엄 CDN 서비스는 내려받기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으며, 풀 HD급 영상 스트리밍이 가능하므로 유스트림코리아가 더 원활한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돕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KT는 아마존웹서비스(AWS)와의 경쟁을 예고하며 유클라우드를 운영했다. 그렇게 보면 KT의 프리미엄 CDN 서비스 진출은 놀라운 소식이 아니다. 오히려 서버, 스토리지에 이어 당연한 수순으로 보인다. 다만 왜 따로 자사 서비스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 유스트림코리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CDN 서비스를 소개했는지에 대해서는 궁금증이 든다. 애초 KT는 KT 그룹의 대표적인 미디어 콘텐츠 계열사인 유스트림코리아에서 지난 3월 서비스 출시 후 7개월간 주요 성과와 KT와 시너지 전략에 대해 발표하는 기자간담회를 준비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뜬금없이 프리미엄 CDN 서비스를 유스트림 전략 소개 끝에 덧붙였다. 더구나 '세계 최초'란 수식어까지 붙였다.

배경을 먼저 들여다보자. KT는 지난 10월 소셜 생방송 플랫폼 업체 유스트림과 손을 잡고 합작법인 '유스트림코리아'를 세웠지만 뚜렷한 성과를 기록하지 못했다. 인수 전 유스트림은 소프트뱅크로부터 투자도 유치하며 유명세를 얻었지만, 지난해 말 투자가 취소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유명세도 가라앉았다. 100억달러를 들여 유스트림코리아를 세운 KT로서는 반가운 소식일 리 없다. KT는 고민에 휩싸였다. 유스트림코리아가 계륜이 됐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들어온 돈을 생각하면 유스트림을 쉽게 내칠 수 없고, 계속 끌고 가자니 장비나 회선 등에 적잖은 돈이 들어가는 상황이었다. 한 CDN 업계 관계자가 "유스트림 코리아라는 계륜을 손에 쥔 KT로서 어떻게든 유스트림 코리아를 띄우고 싶고, 그 과정에서 나온 게 '프리미엄 CDN' 서비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한마디로 '본전 생각'이 난 KT의 무리수라는 얘기다.

그렇다면 KT는 프리미엄 CDN으로 전화위복할 수 있을까. 이 또한 미지수다. KT가 밝힌 내용을 들여다보면 고개를 갸웃거리게 되는 대목이 적잖다. KT는 프리미엄 CDN 서비스를 내놓은 배경으로 “스마트 단말기 확대와 함께 지속적해서 증가하는 동영상 트래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그 뿐 아니다. KT는 유럽, 아시아, 북남미 지역 13개국 글로벌 통신사들과 ‘유통 서비스망에 관한 전략적 제휴’를 추진하고 있어, 올해 안에 해외에서도 콘텐츠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글로벌 유통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하지만 CDN 관계자들은 KT의 발표에 의문을 표시한다. 우선 KT가 주장한 QoS부터 살펴보자. 한 국내 CDN 업체 관계자는 “CDN 기술이 나온 건 90년대 말로, 이후 CDN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아카마이조차 아직 소프트웨어로 내려받기 속도를 향상하는 방안에 대해 제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소프트웨어로 QoS를 보장할 수 있다고 당당하게 선언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혀를 내둘렀다. 또한 “프리미엄 CDN 서비스를 위해서는 통신망 자체가 바뀌어야 하는데, 어떻게 이를 순수하게 소프트웨어로 해결했다고 설명했는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CDN 업체 관계자는 “QoS는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최소 보장이 필요하다”라며 “만약 KT가 이를 자체 기술력을 바탕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해결한다고 하면 이는 인터넷 인프라 대혁신으로 노벨상급 기술”이라고 꼬집었다.

KT가 프리미엄 CDN 서비스를 실제로는 아카마이 기술과 시스코의 네트워크 장비를 결합해 제공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도 그럴 것이, KT는 지난 4월 아카마이와 기술 제휴를 맺고 CDN 솔루션을 개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난 6월에는 세계적인 네트워크 통신업체인 시스코와도 손을 잡았다. KT가 이들 업체 기술로 더욱 개선된 CDN 서비스 기술을 마련했을 거란 추측은 이 때문에 나온다. 실제로 아카마이 쪽도 “KT의 프리미엄 서비스는 아카마이와 협력을 통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프리미엄 서비스엔 아카마이의 기술과 운영 비법이 담겨 있다”라고 설명했다. KT가 프리미엄 CDN 서비스를 통해 CDN 업체들과 경쟁하기보다는, 차라리 이들과 손을 잡고 새로운 서비스를 발표했다는 데 무게가 실리는 까닭이다.

삼성전자 실적 고공행진...무선사업부 매출 30조 2012.10.26 한국경제

스마트폰이 성장 견인...소비자가전 상대적으로 부진 부품사업, 반도체 약세에도 디스플레이 '깜짝성장'

삼성전자가 세계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의 판매 호조에 힘입어 다시 사상 최고 실적을 갈아치웠다.

3분기 영업이익은 직전 사상 최고치였던 2분기보다 20.83% 늘어난 8조1천200억원을, 매출액은 9.62% 증가한 52조1천800억원을 각각 기록했다.이 덕분에 4분기까지 포함한 연간 영업이익은 매출액 200조원, 영업이익 25조원 돌파가 확실시된다.

◇**휴대전화 포함한 IT모바일 부문이 영업이익의 69%** = 이 같은 실적 고공행진은 무엇보다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스마트폰을 비롯한 모바일기기 시장에서 미국 애플과의 양강 구도를 굳힌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휴대전화를 담당하는 무선사업부가 있는 IT모바일(IM) 부문은 3분기 매출액이 29조9천200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57%를, 영업이익은 5조6천300억원으로 전체 영업이익의 69%를 각각 차지했다. IM부문 영업이익은 전분기(4조1천900억원)보다 34% 늘고, 지난해 3분기(2조4천200억원)에 비하면 132%나 급증했다. 매출액도 전분기(24조400억원) 대비 24%, 지난해 3분기(17조9천400억원) 대비 67% 증가했다.

예상대로 무선사업부가 전체 실적 성장의 대부분을 견인했다고 할 수 있다.

IM부문에서 무선사업부의 매출 비중은 88%에 달한다. 삼성전자는 26일 "스마트폰은 전분기 대비 10% 초반, 피쳐폰(일반 휴대전화)은 10% 수준의 성장세를 보였다"며 "갤럭시S3의 글로벌 확산과 중저가 라인업 강화로 스마트폰 판매가 큰 폭으로 성장했다"고 밝혔다. 반면 TV, 생활가전 등 다른 세트사업을 담당하는 소비자가전(CE) 부문은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인한 선진시장의 수요 둔화로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CE부문은 3분기 영업이익이 4천300억원으로 전분기(7천600억원)보다 43% 감소했으나 지난해 3분기(3천100억원)에 비해선 38% 늘었다. 매출액은 11조6천억원으로 전분기(12조1천500억원)보다 4.5% 줄고 지난해 3분기(11조4천억원)보다 2% 늘어는데 그쳤다.

삼성전자는 "TV는 여름 휴가 시즌 영향과 업체간 경쟁 심화에도 LED TV가 전분기 대비 30% 중반의 성장세를 보이면서 견조한 수익성을 유지했으나, 다른 생활가전은 선진시장의 수요 둔화와 에어컨 비수기 영향으로 실적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 **반도체 부진 · 디스플레이 실적 개선** = 부품사업은 공급 과잉에 따른 가격 하락과 PC 수요 약세로 반도체가 상대적으로 부진했으나 디스플레이에서 두드러진 실적 개선을 보이면서 양호한 성적을 거뒀다. 반도체 부문 3분기 매출액은 8조7천200억원으로 전분기(8조6천억원)보다 1.4% 늘었으나 지난해 3분기(9조4천800억원)에 비해서는 8% 후퇴했다. 영업이익은 1조1천500억원으로 전분기(1조1천100억원)보다 3.6% 증가한 반면 지난해 3분기(1조5천900억원) 대비 28% 줄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반도체는 PC 수요의 약세로 공급 초과 상태가 지속했으나 모바일·서버 수요는 상대적으로 견조했다"며 "시스템 반도체는 첨단 공정과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의 확대에 실적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디스플레이패널은 중국 등 신흥시장 수요 호조와 태블릿PC 판매 증가에 힘입어 실적이 눈에 띄게 개선됐다. 디스플레이패널 부문 영업이익은 1조900억원으로 전분기(7천500억원)보다 45% 늘고 지난해 3분기 900억원 영업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다. 매출액은 8조4천600억원으로 전분기(8조2천500억원)보다 2.54% 늘고 지난해 3분기(7조800억원)에 비해 19% 증가했다.

◇ **애플 영업이익률에는 크게 뒤져** = 삼성전자가 3분기에 올린 영업이익 8조1천억원은 시장 전문가들도 예상치 못했을 정도로 큰 수치이다. 국내 증권사들의 영업이익 추정치는 평균 7조5천억원 선이었다.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률은 15.5%로 1분기(12.9%), 2분기(14.1%) 보다 개선됐다. 그러나 경쟁사인 애플에는 아직도 크게 뒤져 있다. 이날 애플은 지난 분기에 매출액 360억달러, 영업이익 109억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영업이익률은 30.4%로 삼성전자의 2배에 가깝다.

"블랙먼데이 사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 마켓워치 2012.10.18 조선일보

최근의 증시 등락 추이를 살펴볼 때 뉴욕 증시가 하루 만에 20% 넘게 내린 1987년의 '블랙먼데이'와 같은 폭락 사태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17일(현지시각) 마켓워치는 자비에 가바익스 뉴욕대학교 교수 등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최근 증시를 살펴보면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언제든지 하루 만에 3000포인트 이상 급락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가바익스 교수는 10년 전 보스턴대학 폴리머 연구센터의 연구원들과 '증권시장 활동의 큰 변동성에 대한 이론(a theory of large fluctuations in stock market activity)'을 발표한 바 있다. 그는 마켓워치와의 인터뷰에서 "원래의 연구 결과가 최근 10년 동안 더 강화됐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가바익스 교수와 연구진은 복잡한 수리식을 이용해 하루 만에 증시가 폭락하는 사태가 얼마나 자주 발생할 수 있는지를 연구했다. 이 이론에서 증시 폭락 빈도를 산출하려면 일정한 가정이 필요하지만, 연구진은 20세기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증시가 이 이론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확인했다고 가바익스 교수는 설명했다.

연구진은 하루 만에 증시가 20% 이상 폭락하는 사태는 평균 104년에 한 번 꼴로 나타나는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이런 증시 폭락 사태가 언제 일어날지 알 수 없어 투자자가 항상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가바익스 교수는 경고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시장을 지배하는 대형 투자자들은 언제든지 원하는 때에 집단으로 서킷 브레이커 등의 규제를 피해 증시에서 빠져나갈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면서 “개인투자자나 은행 등 기관투자자는 포트폴리오를 보호하기 위한 완충 쿠션 역할을 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행히 완충 역할을 마련하기란 말처럼 쉽지 않다”면서 “이런 완충 쿠션을 마련하면 증시가 하락하지 않을 때 수익률은 낮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헤지펀드 컨설턴트인 마이클 벨킨은 “향후 12~15개월 사이 증시가 최대 40% 이상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KT 애플, 타이니팜과 손잡다 2012.10.26 매일경제

KT는 모바일 리워드 서비스인 ‘애플(Appang)’의 이용 혜택 증대를 위해 국내 최대 모바일 게임사인 컴투스 와 양해각서(MOU)를 교환하고 모바일 시장에서의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제휴를 통해 양사는 애플에서 앱을 다운받거나 광고를 시청한 고객들에게 제공되는 가상포인트를 컴투스의 캐쉬아이템으로 전환해주는 마케팅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타이니팜’ 등 소셜 게임의 흥행 기반 모바일 게임 소셜플랫폼 ‘컴투스 허브’는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높은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어 KT의 애플 서비스는 이번 협약을 통해 포인트 활용도를 높이고 보다 광범위한 글로벌 고객 기반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500 스타트업 대표 “스타트업, 카피캣이 제일 위험” 2012.10.26 전자신문

“시간을 돌려 저에게 초기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투자할 기회가 주어진다고 해도 투자하지 않았을 겁니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는 초기에 별다른 수익 모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성장률만 봤을 때는 투자 의향이 있지만 아이디어 당시라면 대답은 ‘노(No)’입니다. 어떤 창업이든 초기부터 명확한 수익 모델이 있어야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데이브 맥클루어(Dave McClure) 500 스타트업 대표는 수익 모델에 대한 명확한 계획 없이 무조건 이용자부터 모으는 식의 창업은 좋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페이스북처럼 엄청난 이용자를 모으면 나중이라도 수익 모델을 넣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기업 지속이 어렵기 때문이다. 창업은 고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고 기업은 문제를 해결하면서 반드시 수익을 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크로아티아에 ‘파머온비즈’란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농장에서 키우는 소가 하루에 우유를 얼마나 생산하는지 측정하는 서비스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죠. 새롭지도, 재밌지도 않지만 농부에게는 정말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테크크런치 등에 나오는 놀랍고 새롭지만 명확한 수익 모델이 없는 아이디어보다 이런 아이디어가 더 낫다고 봅니다.”

500 스타트업은 와이컨비네이터와 플러그&플레이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실리콘밸리 대표 액셀러레이터. 맥클루어 대표 개인은 실리콘밸리에서 슈퍼엔젤로 통한다. 구글이 3500 억원에 인수한 와일드 파이어에 투자한 것을 비롯해 링크드인에서 1200 억원에 사들인 슬라이드웨어, 인튜이트가 1900 억원에 인수한 민트닷컴 등에 투자하며 안목을 인정받았다. 그런 그의 스타트업 투자 기준은 초기 수익 모델 도입과 더불어 초기 비용이 적은 서비스, 인터넷과 모바일로 확장성을 가진 서비스다. 반대로 투자 부적격으로 생각하는 기업은 고객보다 기술에 집중하는 곳, 경력만 내세우는 사람들이 모인 곳, 지나치게 계획에 집착하는 곳이다. 하지만 가장 경계하는 곳은 무조건 선도 기업 서비스를 따라하는 곳이다. 이른바 기술만 따라한 ‘카피캣(Copycat)’에는 투자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그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처럼 특정 서비스가 성공하면 비슷한 서비스가 쏟아져 나온다”며 “이들이 의미 있는 건 서비스를 통해 새로운 문화를 만들었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이것은 ‘최초’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단순히 기술만 따라하는 모방자들은 이러한 가치를 만들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스타트업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창업에 집중된 것 같다”며 “한국 문화와 트렌트, 소비자 욕구를 반영해야지 무조건 해외 사례만 가지고 와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미국, 중국 때리기 멈춰야 세계 경제 살아난다 2012.10.26 중앙일보

“미국이 저축은 안 하고 중국 탓만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보호무역주의로 이어질까 두렵다.”

‘닥터 둠’ 스티븐 로치 예일대 교수가 25일 미국의 경제 리더십을 강하게 비판했다. 오바마 대통령과 롬니 공화당 후보의 ‘중국 때리기(China bashing)’ 경쟁이 세계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얘기다. 그는 “미국의 반중(反中)감정이 풀려야 세계경제가 살아난다”며 “지금처럼 가면 한국 같은 수출의존형 국가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로치는 이날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글로벌 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향방’ 세미나에서 “글로벌 경제가 근본적으로 회복되려면 무역마찰과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고 불균형 축소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실은 반대라고 그는 진단했다. “미국 경제의 부진이 앞으로도 몇 년간 계속되면서 ‘중국 때리기’가 차기 정부에서도 계속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로치는 “중국은 2005년부터 꾸준히 위안화 가치를 끌어올리고 내수를 키우며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며 “문제는 오히려 미국”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경제에 대해 그는 “저축보다 많은 부채에 시달리는 ‘좀비 소비자(Zombie consumer)’가 여전히 활력을 갉아먹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 가계의 저축률이 너무 낮아 건전한 소비증가가 어렵다는 것이다. 로치는 “대공황 이후 미국 가계의 저축률이 7.9%였는데 지금은 3.7%”라며 “마이너스였던 금융위기 이전보다 늘었지만 미국이 저축에 힘입어 성장하기는 역부족”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도 미국의 저축 부족을 메워줄 중국과 각을 세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자 아시아의 경제성장에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중국이 불균형 축소의 열쇠를 쥐고 있다”며 “미국은 중국을 위협이 아닌 기회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경제에 대해서도 로치는 자칫 ‘고래 싸움에 휘말린 새우 꼴’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럽 등 선진국 시장을 주축으로 세계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 외부충격에 취약한 수출주도형 경제인 한국이 외환위기 때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2013년까지 한국 경제가 잠재성장률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며 “민간소비를 진작하는 성장방식으로 바꿔 불균형을 축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화, 태양광 세계 3위 기업으로 2012.10.26 중앙일보

한화그룹이 올 8월 인수한 독일 태양광 업체 큐셀을 한화큐셀로 새롭게 출범시켰다.

출범식은 25일(현지시간) 독일 작센안할트주 비터펠트-볼펜시의 큐셀 공장에서 홍기준 한화케미칼 부회장(사진 가운데), 라이너 하젤로프 작센안할트 주총리(오른쪽)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로써 한화그룹은 한화솔라원의 중국 공장(1.3GW)에 한화큐셀의 독일·말레이시아 공장(1GW)의 셀 생산능력을 더해 세계 3위의 태양광 기업이 됐다. 1, 2위는 중국 JA솔라와 선택파워다.

홍 부회장은 “기존 큐셀의 브랜드 이미지와 높은 기술력을 더해 한화큐셀은 그룹 태양광 사업의 연구개발 중심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구속으로 오너 부재 상태인 것과 관련해 “이제 출범한 한화큐셀은 독일·말레이시아 정부로부터 각종 지원을 끌어내고 협력해야 할 부분이 많은데 아쉬울 따름”이라며 “실제로 하젤로프 작센안할트 주총리를 통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면담을 추진했

지만 이뤄지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하젤로프 주총리는 “한화가 큐셀 일자리의 80%를 승계함으로써 작센주의 태양광 연구개발 능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화큐셀에서는 180여 명 연구 인력이 일하고 있다. 하젤로프 주총리는 이어 “한화큐셀은 한국과 독일 양국의 협력을 통해 세계 태양광 시장을 선도하는 업체로 도약할 것”이라고 했다.

한화는 큐셀 독일 본사와 말레이시아 공장 등을 555억원에 인수했다. 말레이시아 공장 부채 8억5000만 링깃(약 3100억원)을 한화가 떠안는 조건이었다.

中 최대 희토류 업체, 수요 급감에 생산 중단 2012.10.25 전자신문

중국 최대의 희토류 업체가 수요가 급감하자 일부 공장 생산을 일시 중단했다고 일본 언론이 2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희토류 업체 내몽고포강희토는 24일부터 일부 공장 가동을 1개월간 중단키로 했다.

중국 희토류의 최대 수요처인 일본이 2010년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사태 이후 수입처를 다변화한데다 세계 경제 침체 등에 따른 수요 감소와 중국 정부의 자원 보호 강화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현지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교토통신은 중국의 올 1~8월 희토류 수출량이 8700톤으로, 정점을 이뤘던 2003년 같은 기간의 7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2003년 중국의 희토류 수출량은 7만4000톤에 달했으나 올해는 1만2000~1만3000톤에 그칠 전망이다. 중국의 희토류 생산 업체는 약 300개사에 달했지만 정제·가공 업체의 약 25%가 문을 닫았으며 가동 중인 업체도 가동률이 30~40%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중국 희토류 업체 관계자는 “일본으로의 수출 격감과 세계 경제 침체로 수요가 줄어 파산한 업체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희토류는 반도체, 자동차, 컴퓨터의 첨단 부품을 만드는 데 필요해 ‘첨단산업의 비타민’으로 불리며 그동안 중국이 세계 수출량의 80~90%를 차지했다.

애플 4분기 실적 발표 “보유 현금만 무려 133조원” 2012.10.25 전자신문

애플이 2012회계연도 4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회계 보고에 따르면 애플이 보유한 현금만 1213억달러(한화 약 132조9690억원)로, 아마존의 시가총액을 넘는다.

25일(현지시각) 더 버지, 테크크런치 등 외신들에 따르면 애플은 자사 2012회계연도 4분기(실제로는 2012년 3분기에 해당) 실적에 대해 82억달러(한화 약 8조9929억원) 수익과 360억달러(한화 약 39조4812억)의 매출을 올렸다고 밝혔다. 1년 전인 2011회계연도 4분기의 66억2000만달러 수익과 282억7000만달러 매출 기록을 갱낸 것이다. 또 1213억달러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는 현재 1007억7000만달러의 시가총액을 가진 아마존을 현금으로 구입하고도 남는다. 더 버지는 “아마존 혹은 NASA의 우주정거장을 현금 매입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표현했다. 야후의 시총은 196억8000만달러, 페이스북은 483억3000만달러다. 개인용 컴퓨팅 단말기의 전통적 제왕이었던 델, HP의 시총은 각각 160억3000만달러, 279억달러다.

애플의 2012회계연도 실적은 1년 전인 2011회계연도와 비교해 2011년과 비교해 순수입 61% 성장, 매출은 45% 성장해 1560억달러를 기록했다. 4분기(애플 회계연도 기준) 실적을 단말기별로 살펴보면 아이폰 판매가 전년 대비 58% 성장, 2690만대 판매되었다. 하지만 이 실적에 아이폰5는 별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애플의 4분기 회계연도 시작 9일 전이야 발표되었기 때문이다. 2011년 4분기(애플 회계연도 기준)에는 1700만대 판매되었다.

아이패드도 1년 전의 1100만대보다 26% 성장해 1400만대 판매됐다. 매킨토시 판매 성장률은 상대적으로 평탄해 전년 대비 단 1% 성장한 490만대 판매를 기록했다. 아이팟 제품군 판매는 계속 하락하고 있다. 지난해 대비 19% 떨어진 530만대 판매됐다. 또 미국 외 지역의 판매는 계속 상승하고 있어 애플 매출의 60%를 차지했다.

애플의 2012년회계연도 3분기(실제로는 2분기에 해당) 실적은 88억달러 수익과 350달러 매출을 기록했으며 아이폰 2600만대, 아이패드 1700만대, 맥 400만대, 아이팟 680만대가 판매되었다.

팀 쿡 애플 CEO는 Q&A 세션에서 아이패드 미니에 대한 전략을 거론했는데 “애플이 이전 제품들보다 수익이 낮은 단말기를 판매하고 있다”며 “7인치 단말기 생산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MS 서피스에 대해서는 “혼란스러운 제품”이라며 태블릿PC 시장에서 애플의 경쟁력을 과시했다. 애플의 실적에 대해 증권가는 뒤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매출은 애널리스트들의 기대를 충족시켰지만 수익에서는 실망시켰기 때문이다. 특히 아이패드 판매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반응이다. 애플의 실적 발표 후 주가는 4% 하락했다가 서서히 반등했다.

농심 라면에 발암물질 검출...회수조치 '비상' 2012.10.25 한국경제

식약청, '발암물질 검출' 농심 라면 등 9개 제품 회수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검출된 농심 라면 제품 등을 회수하기로 25일 결정했다.

손문기 식약청 식품안전국장은 이날 오후 서울 목동 서울식약청에서 간담회를 열고 "부적합 원료를 공급받은 9개 업체 30개 품목 중 유통기한이 남아 있는 4개사 9개 제품에 대해 즉각 회수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회수되는 제품은 농심의 '생생우동' '순한 너구리' '얼큰한 너구리' '새우탕 큰사발면' '너구리 큰사발면' '너구리컵' 6종과 동원홈푸드의 '동원생우동해물맛', 민푸드시스템의 '어묵맛조미', 화미제당 '가쓰오다시' 등 9개 제품이다. 회수 기한은 내달 10일까지이며, 회수 규모는 유통기한이 남아 있는 560만개로 추정된다.

손 국장은 "벤조피렌이 제품에 소량 남아 있어 건강에 위험한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지만 국민들의 우려를 감안해 유통된 제품을 회수하기로 했다"면서 "나머지 제품들은 현재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식약청은 또 제품에 대한 기준 마련 방안을 검토하고, 그간의 조치 적절성에 대해 재평가하는 등 제도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손 국장은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시험 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훈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벤조피렌 저감화 방안 및 HACCP 적용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해당 라면 제품의 벤조피렌 함유량이 미량이어서 인체에 무해하다고 주장해 왔지만 전날 열린 국감에서 의원들의 거듭된 요구에 입장을 바꿨다. 이희성 식약청장은 국회 보건복지위 국감에서 "부적합원료를 사용한 제품이 있다면 자진 회수해 폐기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심 라면 제품의 유해성 논란은 23일 이언주 민주통합당 의원이 "벤조피렌 기준 초과 원료를 사용한농심 등 일부 라면 제품에서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발표하면서 촉발됐다.

이 의원은 식약청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농심 '생생우동' '순한 너구리' '얼큰한 너구리' '새우탕 큰사발면' '너구리 큰사발면' '너구리컵' 등의 스프에서 kg당 2.0~4.7μg(마이크로그램)의 벤조피렌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식약청은 "문제된 제품의 벤조피렌 함량은 불검출~4.7ppb로 우리나라 훈제건조어육 기준(10ppb 이하)보다 낮은 안전한 수준"이라면서 "해당 제품 섭취로 인한 벤조피렌 노출량은 조리육류의 노출량보다 1만6000배 낮다"고 해명했다. 벤조피렌은 식재료를 훈연·가열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1급 발암물질이다. 식약청은 라면 스프에 대한 벤조피렌 허용 기준이 없어 농심에 별도의 제재를 가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EU, MS에 "이용자 웹브라우저 선택권 박탈" 경고 2012.10.25 조선일보

유럽 반독점 규제 당국이 윈도 8 출시를 앞둔 마이크로소프트(MS)에 "PC 이용자의 웹브라우저 선택권을 박탈했다"며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CNN머니는 24일(현지시각)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이용자에게서 인터넷 브라우저 선택권을 박탈한 MS에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예비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EC는 MS와의 2009년 반독점법 합의에서 향후 5년 동안 유럽 PC 사용자가 웹 브라우저를 선택할 수 있는 '브라우저 선택 화면'을 운영체제에 포함시키도록 명령한 바 있다.

그러나 MS는 합의 초기에만 이를 잠깐 이행하고, 작년 2월 윈도 7 서비스팩 1을 출시한 후에는 EC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이에 EC는 지난 7월부터 MS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시작한 바 있다.

이날 EC의 결정에 따라 MS는 4주 이내에 대응 절차를 밟거나 매출의 10%를 벌금으로 물어야 한다. 지난해 MS의 매출은 약 700억달러를 기록했다. MS측은 EC의 결정에 대해 "새로이 출시될 윈도 8에는 브라우저 선택 화면이 들어갈 수 있도록 수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호아킨 알무니아 EC 위원은 "최종 판결을 내리기 전에 MS측의 입장을 들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EC는 MS가 반독점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2004년 4억9700만달러, 2006년 2억805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유스트림코리아 "KT와 함께 전세계 한류콘텐츠 유통 강화" 2012.10.25 매일경제

"한류콘텐츠 유통 강화하며 소셜라이브서비스 시대 열겠다"

KT그룹의 미디어 콘텐츠 계열사인 유스트림코리아는 KT와 함께 글로벌 한류 콘텐츠 유통을 강화하면서 소셜라이브서비스(SLS) 시대를 열겠다는 비전을 내놓았다.

동영상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인 유스트림코리아는 2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26일 0시를 기점으로 새로운 버전의 사이트를 공개하면서 누구나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라이브 소통 환경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새로워진 유스트림은 사용자가 더 쉽게 원하는 콘텐츠를 찾고 공유할 수 있는 라이브 포털 형태로 개편된다. 이에따라 사용자는 화제의 라이브 콘텐츠를 한 곳에서 모아볼 수 있으며 콘텐츠를 시청하면서 다른 콘텐츠를 검색할 수 있다. 아울러 채팅 기능인 '소셜스트림'에 페이스북과 연동한 소셜 댓글 작성 기능도 추가된다.

특히 유스트림코리아는 KT와 협력을 통해 국내 콘텐츠를 발굴하고 해외에 유통하는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KT 올레TV, Genie, 올레뮤직, 스포츠단 등의 콘텐츠를 글로벌로 송출해온 유스트림코리아는 앞으로 Genie와 연계해 SM, JYP 등 대형 연예기획사들과 공동으로 음악 관련 한류 콘텐츠 개발, 올레뮤직의 인디어워드 중계, 프로농구.프로게임단 관련 중계 등 다양한 콘텐츠를 공동으로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유스트림코리아는 이밖에 KT와 그룹사인 나스미디어, 엠하우스와 협력해 글로벌 광고 사업을 추진하고 '유스트림 스튜디오'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김진식 유스트림코리아 대표는 "이번 사이트 개편과 KT와의 협력 강화로 고객들에게 다양하고 질 좋은 콘텐츠를 제공하는 글로벌 라이브 포털이 될 것"이라며 "누구나 유스트림을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라이브를 경험하고 공유하는 SLS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유스트림코리아는 지난 3월 서비스 론칭 이후 7개월간 사이 서울광장 콘서트, 주요 대선 후보들의 정치 이벤트, 박지성이 뛰고 있는 QPR의 아시아 투어 등의 생중계를 통해 인지도를 쌓고 있다.

태블릿PC, 전자책 단말기로 매력 있나 2012.10.25 불토터닷넷

아이패드를 쓰며 '어디에다 써?'란 질문을 자주 받는다. 사실 태블릿PC는 사용처를 또렷이 정하기 어려운 기기다. 동영상을 보고, 책을 읽고, 이메일을 확인할 방법은 이미 널려 있다. 동영상을 찍어 공유하고 문서를 작성하는 건 PC나 노트북으로 하면 더 정교하게 할 수 있다. 이동하면서 작업한다고 쳐도 노트북이 있다. 이게 무겁다면 스마트폰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태블릿PC 판매자는 '왜 사야 하는지'에 대해 반드시 대답을 해야 한다. 소비자에게 쓸모 있는 제품이란 메시지부터 던져야 타사 제품과 기기 사양과 가격을 비교할 수 있다. 그래야 소비자가 살지 말지를 고민하지 않겠는가.

그 답을 들려주기 위해 팀 쿡 애플 CEO는 10월23일, 새 제품 기자간담회에서 앱스토어와 사진 스트리밍, 아이메시지, 전자책 등의 성적을 공개했다. 출시할 기기 소개는 그 다음이었다. 그중 전자책 앱 '아이북스'는 애플이 아이패드와 함께 내놓은 뒤 꾸준히 판올림하는 서비스다.

아이북스는 최근 스티브 잡스가 아이패드 출시를 앞두고 출판사와 담합했다는 의혹을 받게 한 서비스이기도 하다. 이 송사에는 애플뿐 아니라 맥밀란, 펙귄그룹, 아셰프그룹, 사이먼앤슈스터, 등 세계적인 출판사도 얽혔다. 유통사의 경쟁을 막는 정가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미국에서 애플은 분명 출판사에 정가를 요구했다. 아이북스에서 더 싸게 팔거나 같은 값에 팔아달라는 내용이었다.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애플은 왜 아이북스를 내놨을까. 그리고 아이패드 새 제품이 나올 때마다 아이북스도 함께 판올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혁신적인 제품도 결국 따라잡힌다...문제는 '콘텐츠'

장은수 민음사 대표는 "스펙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짤막한 답을 내놨다. "기기의 진정한 가치는 스펙에서 나오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무엇'에서 나옵니다. 애플은 그걸 꾸준히 홍보하고 있고요. 콘텐츠가 기기의 가치를 만든다는 철학을 갖고 있는 게지요. 그래서 콘텐츠를 가장 잘, 쉽게 볼 수 있고, 잘 만들 수 있는 제품이란 걸 강조합니다." 지금도 애플 새 제품은 여느 제품과 사양이 비교된다. 다른 제품도 마찬가지다. 각종 태블릿PC를 살 때 고려할 대목으로 화면 크기와 무게, 장착된 칩 종류, 용량, 메모리 크기, 해상도 등이 거론된다. 하지만 점차 기기 사양이 상향 평준화하는 마당에 1g 차이가 문제일까. 제품간 가격차도 크지 않아, 가격 비교도 큰 고민거리는 아니다. 이미 사기로 마음 먹었다면, 끌리는 기기를 고르면 되는 것이다. 애플 7.9인치 아이패드 미니 16GB 와이파이 버전이 329달러, 32GB는 429달러, 64GB는 529달러다. 구글의 7인치 태블릿PC 넥서스7은 8GB 199달러, 16GB 249달러, 아마존의 7인치 태블릿PC 킨드파이어HD는 16GB 199달러, 32GB 249달러, 8.9인치 킨드파이어HD는 와이파이 버전이 299달러, LTE를 지원하는 제품이 499달러다.

이 다양한 선택지에서 소비자가 결국 고르는 것은 쓸모있는 제품이다. 출시 초기 사양이 형편없다는 얘기를 들은 아마존 킨드파이어 성적을 보면 알 수 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킨드파이어는 지금까지 약 700만대 팔렸다. 미주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영어 콘텐츠만 이용 가능하다는 한계에도 나쁘지 않은 성적이다. 경쟁하는 7인치 태블릿PC나 그보다 큰 태블릿PC와 비교해도 사양이 좋은 편이 아닌 점을 떠올리면 성공했다고 볼 수도 있겠다.

킨드파이어는 기기 사양만 따지면 이해할 수 없는 성적을 기록했다. 이 제품은 2011년 9월, 7인치 태블릿PC로, 8GB 제품이 199달러에 소개됐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아마존 콘텐츠에 맞게 변형해 사용했다. 킨드파이어는 아마존이 서비스하는 전자책 '킨들'과 음악 '아마존 MP3 스토어', 동영상 '아마존 인스턴트 무비', 모바일 앱스토어 '아마존 앱스토어' 전용 단말기다. 사실 위 4가지 콘텐츠는 아마존 외에도

구글 플레이, 애플 앱스토어와 아이튠즈 등에서 이용 가능하다. 그런데도 소비자의 선택을 받은 건 전용 단말기라는 개념 덕분으로 보인다.

성대훈 한국이퍼브 총괄이사는 “사용자는 자기가 즐기는 콘텐츠에 최적화된 기기를 소비한다”라고 이 현상을 진단했다. “아마존은 자사 제품군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합니다. ‘킨들은 전자책, 킨드파이어는 게임과 동영상’ 등 콘텐츠를 잘 보여주는 디바이스라는 개념입니다. 이와 달리 애플을 비롯한 제조사 쪽에서는 기기 사양을 먼저 제시하고, 거기에 적합한 콘텐츠를 보여주는 식이지요.”

음악, 영화, 사진 그리고 '책'

태블릿PC의 주요 업체는 태블릿PC 출시와 함께 전자책 서비스를 내놨다. 구글은 7인치 태블릿PC 넥서스7을 국내에 출시하기 전, 전자책 서비스를 먼저 내놨다. 국내 출판사, 유통사와 제휴해 구글 플레이 도서에 한국 책을 9월5일 서비스하기 시작했다. 애플은 아이북스를 국내에서 정식 서비스하지 않으나, 아이패드 출시와 함께 아이북스를 내놨다. 삼성전자는 리더스허브라는 전자책 서비스와 함께 갤럭시탭을 2010년 출시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탭 출시를 앞두고 출판계를 찾기도 했다. 구글도 구글 플레이에 콘텐츠를 넣기 위해 국내 출판사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 또한 아이북스를 준비하여 출판사와 논의했다. 마치 공식처럼 태블릿PC와 전자책이 묶여 나온 것이다.

장은수 대표는 “개인이 갖고 싶어하고 늘 접하는 건 책과 음악, 사진”이라며 “음악과 책, 영화 중에서 태블릿PC 크기의 화면에서 즐길 만한 건 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이용 환경과 맞지 않지만, 미국에서는 태블릿PC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이메일과 인터넷, 책읽기 순”이라고 덧붙였다.

‘태블릿PC=책 읽는 기기’라는 메시지가 유독 7인치대 태블릿PC에서 강조되는 까닭은 무엇일까. 성대훈 이사는 “음악은 스마트폰에서 이용률이 높고, 화면 크기상 잡지나 책이 적당하다고 여겨졌는데 사실 10인치대는 애매했다”라며 “7인치대 태블릿PC는 휴대성이 담보되며, 적합한 디지털 콘텐츠로 단행본이 강조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럼 전자책 전용 단말기 시장을 태블릿PC가 파고드는 상황으로 볼 수 있겠다. 책 읽는 단말기로 음악을 듣고, 웹 서핑을 하고, 영화를 보고, 게임을 하고, 그 외에도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니, 전자책 전용 단말기가 설 자리는 이제 없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닌가.

아이패드 이후로 다양한 화면 크기를 가진 태블릿PC가 등장했다. 대부분 기기는 전자책 전용 서비스를 내놓았거나, 전자책 앱을 깔아 쓸 수 있다. 그런데도 아마존과 코보, 반스앤노블은 지난해와 올해 새 전자책 전용 단말기를 내놨다. 한국에서는 교보문고와 한국이퍼브가 새 e잉크 단말기를 출시했다.

성대훈 이사는 “사용자는 콘텐츠를 소비할 때, 즐기는 콘텐츠가 가장 최적화된 기기를 소비한다”라고 말했다. 이 생각은 제조회사가 소비자에게 제품을 팔 때 주는 메시지만, 한편으로 소비자가 단말기를 사는 이유이기도 하단 이야기다. 모든 걸 할 수 있는 똑똑한 기기이지만,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 하나를 보여줘야 소비자의 선택을 얻을 수 있단 설명으로 풀이된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가 있어도 최고의 음질로 음악을 듣고 싶다면 별도 전용 기기를 사고, 게임은 X박스를 쓰듯, 콘텐츠를 제대로 보고 효과적으로 이용할 디바이스를 찾기 마련입니다.”

장은수 대표는 애플의 제품군으로 이 이야기를 적용해, “애플은 음악은 아이팟에서 소비하고, 책과 같은 고급 콘텐츠는 아이패드로 소비하기를 바란다”라고 진단했다.

단골 신년 계획 '올해는 책읽자', 태블릿PC 판매에 도움

이쯤에서 ‘내가 책을 그리 많이 읽던가’라는 의문이 든다. 태블릿PC 이용자면 애독자를 넘어 다독자인걸까.

이중호 복센 미래사업본부장은 “캐주얼 리더에게 전자책 전용 단말기보다 태블릿PC가 선호도가 더 높다”라며 “이 현상은 태블릿PC 가격이 내려가며 점차 퍼진다”라고 말했다.

“태블릿PC는 캐주얼 리더를 대상으로 합니다. 책을 한 달에 수권을 읽는 게 아니라, 친구가 추천해줘 한 번 읽거나, 충동적으로 구매해 보는 사람을 공략하는 게지요. 전자책을 많이 읽는 파워리더는 전용 단말기를 선호하고요.”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애플이 이번에 아이북스를 판올림하며 스크롤해 읽는 설정을 더한 게 이해가 간다. 아이북스3.0은 전자책을 넘겨 읽는 기능에 웹브라우저처럼 위아래로 죽 늘어 보여주고, 스크롤해 읽는 기능을 10월23일 넣었다. 전자책 전문 출판사 아이이펍의 김철범 대표는 “전자책을 넘겨 읽는 건 지금까지 종이책을 봐 온 이용자를 위한 UI, UX로, 책을 자주 읽지 않는 일반 이용자는 스크롤이 더 편할 것”이라며 “그동안 책을 읽는 이용자를 위한 전자책 서비스를 내놨다면, 스크롤은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을 위한 새로운 전자책”이라고 평가했다. 성대훈 이사는 “아이북스에 스크롤 기능을 넣은 건 애플의 실수”라며 “아이북스를 전자책 서점보다 다양한 읽을거리를 보여주는 뷰어로 만들었다”라고 말했다.

카카오톡 또 대박, 애니팡 성공 이어 이번엔 2012.10.25 전자신문

‘카카오스타일’이 출시 한 달만에 손익분기점(BEP)을 돌파했다. 카카오스타일을 운영하는 위시링크(대표김민욱)는 매출액 3 억원을 달성해 분기점을 넘겼다고 밝혔다.

웹애플리케이션(앱) 방식으로 제작된 서비스는 카카오톡 플랫폼에서 사용하는 패션 쇼핑몰 모음 서비스. 모바일 화면에 쇼핑몰에서 올린 상품 화보를 보고 클릭하면 각 쇼핑몰 아이템 목록이 가격과 함께 뜬다. 클릭한 뒤 링크를 타고 쇼핑몰로 이동해 바로 결제할 수 있다. 앱 수익 모델은 바둑판식으로 화면을 나눠 각 상자를 판매하는 것이다. 화보 느낌을 줄 수 있도록 고선명(HD, 1280×800) 화질의 사진을 써서 기존 웹 기반 쇼핑사이트와 차별화했다. 잡지를 넘기듯이 보고 모바일에서 바로 링크를 타고 들어갈 수 있어 ‘스타일 난다’ ‘통앤래빗’ 등 유명 쇼핑몰들이 앞 다퉈 입점했다. 하루에 새로 등록되는 패션의류·잡화는 500 개 이상이다. 이미 하루 순방문자수가 하루 30 만명을 넘어섰다.

위시링크는 NHN·첫눈 등을 거친 김민욱 대표가 공동창업자 두 명과 함께 지난해 설립한 회사다. 김 대표는 “1 년 넘게 쇼핑몰에 대해 고민을 해왔다”며 “모바일에 맞는 패션 콘텐츠를 만들었더니 입점한 쇼핑몰도 점점 신경써서 모바일 페이지를 만드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앞으로 카카오와 연동해서 푸시알람을 보내거나 카카오스토리로 답아가기 등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iOS, 안드로이드용 별도 모바일앱도 개발하고 있다

"경제민주화, 성장 잠재력 훼손" VS "재벌 경제적 집중 견제해야" 2012.10.25 한국경제

'경제민주화 정책 세미나' 대선 캠프 격돌

"정치권은 경제민주화를 앞세워 경제력 분산만 겨냥하고 있다."(이승훈 서울대 명예교수)

"재벌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한 경쟁의 장을 조성하는 법·제도적 기반을 갖춰야 한다."(신광식 연세대 교수)

25 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민주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주제의 정책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대선 최대 승부처로 떠오른 경제민주화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특히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 사회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 홍종학 민주통합당 의원, 전성인 홍익대 교수(안철수 후보캠프) 등 주요 대선후보들의 핵심 브레인들이 불꽃 튀는 대리전을 벌였다.

◆ 규제 방식 놓고 설전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이승훈 명예교수는 "경제적 약자에 대한 재벌의 가해행위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구조 자체를 규제 대상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징벌적 배상과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해 일반 주주들의 자기방어권을 강화해주고 정부는 한발 물러서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종합토론에서 김정호 연세대 교수와 이상승 서울대 교수는 경제민주화가 기업의 의욕과 활력을 위축시키고 우리 경제의 장기 성장 능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김 교수는 "양극화와 소득불평등이 확대됐지만 이게 재벌 때문만은 아니다"라며 "노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생활수준)을 끌어올리는 게 경제민주화지, 재벌 목을 비틀어서 얻어지는 건 없다"고 말했다.

이 교수도 "순환출자 규제와 의결권 제한, 출자총액제한 등 사전적 지분규제는 실효성이 떨어지고 부작용도 크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특히 "출총제 제한은 정부가 기업의 출자행위가 효율적인지 비효율적인지 정하는 것"이라며 "순환출자를 허용하는 대신 실질적인 의결권 내역을 제대로 공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순환출자를 통해 지배주주의 부당한 이익 추구가 문제라면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대표소송제도와 집단소송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주문했다.

반면 신광식 교수는 "기업부문에서 부당한 힘의 집중과 남용이 제대로 규율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징벌적 손해배상 등 사후적 피해구제제도만으로는 강자의 횡포를 막을 수 없다"면서 "시장경쟁의 효율적 작동을 위해 구조 규제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 재벌 역할 놓고 이견

금산분리 강화를 놓고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민세진 동국대 교수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해대기업집단을 해체할 경우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전성인 교수는 "계열 금융회사를 이용한 지배력 확장은 재벌이 금융회사를 지배하려는 매우 중요한 이유 중 하나"라며 "금융회사를 이용한 지배력 확장과 유지 행위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국 사회의 가장 큰 기득권이 재벌에 집중되고 있다"며 "재벌 때리기 논란을 떠나서 미래 사회에 맞게 재벌의 역할을 재설정하는 것은 일정 부분 필요한 작업"이라고 강조했다.



김정호 연세대 교수
"양극화·소득 불평등
무조건 재벌 탓 안돼"



이상승 서울대 교수
"순환출자 제한·출총제
실효성 없고 부작용 커"



홍종학 민주통합당 의원
"혁신적 재벌은 지원
특권적 재벌은 규제"



전성인 홍익대 교수
"재벌, 금융사 이용한
지배력 확장 안된다"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 측의 홍 의원도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은 1920년대 미국과 비슷하다”며 “당시 미국 처럼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면서 경제민주화가 이슈로 떠올랐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민주화는 단순히 재벌 때리거나 재벌 해체를 목표로 한 것이 아니다”라며 “혁신기업으로서의 재벌은 지원하고 특권기업으로서의 재벌은 규제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광림 의원은 “시대적 가치인 경제민주화는 실천이 중요하다”면서 기업집단을 사전 규제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분야의 조직 확충을 제안했다.

진보당 출신의 박원석 무소속 의원은 “경제민주화는 재벌을 우회해 갈 수 없다”며 “재벌 중심의 특권경제구조를 해체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美, 中 투자에 잇달아 제동...통상마찰 격화 2012.10.24 조선일보

세계 여러 곳에서 투자를 유치해 온 미국이 유독 중국 기업들의 투자에는 민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정부가 직접 중국 기업들의 미국 기업 인수합병(M&A)에 제동을 걸면서, 두 나라 사이 통상마찰이 심화되고 있다.

◆ 중국 투자 가로막는 미국 행정부

지난 16일 미국의 대표적인 전기차용 배터리 업체 A123은 델라웨어주 파산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A123은 오바마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온 대표적인 녹색기업으로 손꼽힌다. 이 업체는 파산을 막기 위해 지난 8월 중국 자동차 부품업체인 완상그룹에 지분 80%를 넘기는 협상을 진행했지만, 배터리 기술 유출을 우려한 미국 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실패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중국 최대 기계 제조업체인 사니중공업이 미국 오리건 주에서 추진 중이던 풍력발전소 사업을 금지하기도 했다. 지난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사니중공업의 풍력발전소 건설 사업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손상할 수 있다는 신뢰할 만한 증거가 있다"며 이와 관련한 모든 사업을 불허한다고 밝혔다. 미국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특정 사업에 대한 불허 방침을 밝힌 것은 지난 1990년 조지 H.W. 부시(아버지 부시) 대통령 이후 22년 만이다. 당시 조지 H.W. 부시 대통령은 중국기업들이 미국 내 자동차 관련업체를 인수하지 못하도록 제재한 바 있다.

정부뿐만 아니라 의회 역시 중국 기업들을 강하게 견제하고 있다. 미국 하원의회 산하 정보위원회는 지난 8일 "화웨이(華爲)와 ZTE 같은 중국의 통신업체가 미국 관련 기밀을 빼내 미국 안보를 위협한다"며 중국 기업들이 미국 기업을 인수·합병하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또 사이버 공격을 할 수 있기에 미국 정부 역시 중국산 장비를 일체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 금융 위기 이후 미국 기술 노리는 중국 투자 크게 늘어

미국이 중국의 대(對)미 투자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투자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다, 이 투자액이 미국의 안보와 직결되는 분야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기업의 미국 투자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급증했다. 리먼브라더스 사태 이후, 경기 침체와 실적 악화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를 유치하던 미국 정부와 적당한 해외투자처를 찾던 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미국 내 투자는 38억달러로, 약 8억달러에 그쳤던 지난 2008년보다 5배 가까이 증가했다. 뉴욕의 컨설팅 업체인 로디움 그룹에 따르면 올해 중국의 미국 투자규모는 지난해보다 두 배 늘어난 80억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1건당 평균 투자액도 2005년부터 2008년 3년간 평균 2926만달러에서 2009년부터 지난해 평균 9611만달러로 3배 이상 증가했다. 문제는 투자액의 대부분이 미국의 안보와 직결되는 전자·정보기술(IT)산업, 화학

산업, 에너지산업에 집중돼 있다는 점이다.

현재 중국의 대미 투자건수 가운데 전자·IT산업 부문의 비중은 23.5%로, 전체 업종 가운데 가장 많다. 에너지산업은 투자건수는 적지만, 투자액 비중으로는 39.7%를 차지해 가장 크다. 특히 지난 2009년 이후부터는 이 분야에 대한 중국 국부펀드나 중국 국유기업들에 의한 투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이후 중국이 투자한 132억달러 가운데 중국 국부펀드와 국유기업들의 비중은 80.3%(106억달러)에 달한다. 로디움 그룹은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가 미국 기업들이 가진 최신·최첨단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투자액을 늘리고 있다"며 "중국과 힘겨루기를 하는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 내 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이 못마땅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 중국 "정부차원 대응 고민해야"...통상마찰 불시되나

중국은 미국의 이같은 대응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미국에 대한 중국의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있지만, 아직 다른 나라에 비하면 적은 수준이고 미국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적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중국의 투자액이 미국의 직접투자(FDI) 잔고 총액(2조3400억달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25%에 그쳤다. 이는 일본의 대미 직접투자액의 2.3% 수준이다. 중국 측 전문가들은 이런 조치가 이어질 경우, 향후 두 나라 사이 통상마찰이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중국 상무부 산하 무역경제협력연구소(CAITEC)의 메이싱유 연구원은 22일 아사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오바마 행정부는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미국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을 한푼도 못 건진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라며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대응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중국 국무원 산하 사회과학원의 장귀칭 교수도 "미국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중국 정부 역시 국가안보를 이유로 미국산 시스코나 애플 제품에 동일한 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며 "법적으로 보장된 동등한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전문가를 인용해 "이미 일부 중국 기업은 미국을 대신해 허가절차가 간소한 캐나다나 유럽 등지로 투자 지역을 옮기고 있다"며 "올해까지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던 중국의 대미 투자규모가 향후 지부진할 가능성도 있다"고 예측했다.

야후 3분기 실적, 시장 예측 상회 2012.10.23 매일경제

야후의 3분기 실적이 시장의 예측을 웃돌았다. 야후는 22일(현지시간) 뉴욕증시가 마감한 이후 지난 3분기에 특별 항목을 제외한 주당 순이익이 35센트를 기록해 지난해 동기의 23센트보다 늘어났다고 발표했다. 또 같은 기간 매출은 10억9천만달러로 지난해 동기의 10억7천만달러보다 2%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시장 전문가들은 야후의 3분기 주당 순이익(특별 항목 제외)과 매출을 각각 26센트와 10억8천만달러로 예측했다. 실적 발표 이후 야후의 주가는 시간외거래에서 3% 가까이 상승했다.

'글로벌 마셜플랜(Marshall Plan)'이 필요하다." 2012.10.19 조선일보

대공황 이후 최대 경제 위기의 해법, 세계 석학에 듣는다... 린이푸 베이징대 교수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경제성장 병목 해결해야
중국은 20년 이상 연 8%대 성장할 잠재력 있어

"세계 각국이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펴 일제히 기초 시설 개선에 투자하는 '글로벌 마셜플랜(Marshall Plan)'이 필요하다."

올 6월 말까지 세계은행 부총재와 수석 이코노미스트로 일한 린이푸(林毅夫) 베이징대 중국경제연구센터 교수는 "최근 중국 경제 성장세 둔화는 유럽 국채 위기와 경기 부양책 종료에 따른 주기(週期)적인 성격이 있다"며 "중국 경제는 정부의 재정 투자 여력이 충분해 올해 8% 성장은 문제없으며 20년 이상 매년 8%대 성장을 할 잠재력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경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버블(bubble·거품) 경제'에 힘입어 성장해온 측면이 있지만, 앞으로는 버블 경제가 재연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버블은 지속되기 어렵고 반드시 꺼진다. 거품이 꺼지면 경제 위기와 침체가 발생하고 성장 동력도 사라진다. 하지만 버블 경제와, 정부가 재정을 통해 적절하게 유효 수요를 창출하는 케인스주의적 처방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현재 세계경제는 위기를 겪고 침체한 뒤 회복되는 과정에 있다. 민간의 투자 의욕은 아주 낮고 실업률도 높다.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어떤 재정 정책이 필요한가.

"전통적으로 이런 시기 재정 정책은 당장 급한 불을 끄는 데 주력했지만 생산성을 높일 수 없다는 점에서 지속 가능하지 않다. 기초 시설이나 환경 산업 등에 대한 투자로 성장의 병목을 제거하는 데 돈을 써야 한다."

—역사적으로 큰 금융 위기가 발생하면 3~4년 경기 침체 후 다시 살아나는 사이클을 보였는데 이번에는 이미 4년이 지났는데도 위기이다. 이런 사이클이 사라졌는가.

"과거 경제 위기는 한 국가 또는 지역에서 발생하고 다른 지역 경제는 비교적 건강했다. 이 점이 위기 국가의 회복에 큰 도움이 됐다. 위기가 발생하면 임금·복지 혜택 감축, 금융 분야 감원 같은 구조조정이 단행된다. 단기적으로 수요가 감소하고, 실업률이 올라간다. 다른 한편에서 통화 평가절하로 수출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조치가 취해진다. 이렇게 해서 1~2년, 늦어도 3~4년 후 위기에서 탈출했다.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 때는 대다수 국가가 2년쯤 후 위기를 벗어났다. 이번에는 양상이 다르다. 국채 위기에 빠진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등은 독립된 통화가 없어서 평가절하가 불가능하다. 유로화 평가절하는 미국·유럽·일본 간 통화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과 일본은 여전히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있다. 이번 회복 사이클은 이전보다 더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전철을 밟을 수 있다."

—그렇다면 세계경제의 위기 탈출 해법은 뭔가.

"과거 1국 차원의 경제 위기 해결 과정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경제 위기에 빠진 나라는 한편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다른 한편으로 통화 평가절하를 통해 외부 수요를 창출했다. 지금도 이런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이를테면 세계적인 차원에서 체계적인 '글로벌 마셜플랜'을 실시하는 것이다. 선진국은 지금 사회 기초 시설이 매우 오래됐고 개도국도 기초 시설 분야에 문제가 많다. 세계 각국이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 경제성장의 병목을 해결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기초 시설 투자에 나선다면, 1국 차원에서 외부 수요를 창출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런 정책이 없다면 선진국들은 복지 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 적자 확대로 1990년대 일본처럼 변해갈 것이다. 1991년 버블 붕괴 당시, 일본의 재정 적자는 GDP의 60% 수준이었으나 지금은 230%가 됐다."

지금 선진국이 취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선진국 통화가 기축통화라는 우세를 활용해 돈을 찍어 소비와 투자에 투입하는 것이다. 돈을 풀어 물건을 사고, 사회 기초 시설 개선에 투자해야 한다. 단기적으로 소비가 살아나고 생산성도 높일 수 있다. 이런 구상이 현실화하면 위기의 장기화를 막을 수 있고 10년 내 탈출이 가능하다. 그러지 않는다면 20년 이상 위기가 길어질 수 있다."

—중국 경제의 경우, 올해 성장률이 8%에 못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그렇지 않다. 8% 성장이 가능하다고 본다. 중국은 재정 정책을 구사할 공간이 아주 크다. 우선 재정 형편이 상대적으로 좋다. 정부 재정 적자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 안팎이다. 지방정부의 부채가 10조위안가량 되지만, 중국 전체 GDP의 25% 정도다. 둘을 합쳐도 40% 선으로 어느 국가와 비교해도 크게 낮다. 지하철과 순환 도로 건설, 오수 처리 시설 도입 등 투자할 분야가 아주 많다. 저축률도 높고 외환 보유액도 3조달러 이상 된다. 필요하다면 정부가 재정 투자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다."

—너무 낙관적이지 않나?

"2008년 중국의 1인당 GDP는 대체로 미국의 21% 수준이다. 일본은 1951년, 싱가포르는 1967년, 대만은 1975년, 한국은 1977년에 당시 미국 소득 수준의 21%였다. 일본은 1951~71년 연평균 9.2% 성장했다. 싱가포르, 대만도 마찬가지였다. 한국 역시 1977~97년 20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7% 안팎에 달했다. 개혁·개방 후 중국 경제 발전 방식은 동아시아 여러 나라와 아주 유사하다. 동아시아 각국은 미국 소득의 21% 수준에서 이런 '후발 주자의 우세(優勢)'를 이용해 고도성장을 이뤄냈다. 중국은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본다."

** 린이푸(林毅夫·60)

대만 출생, 미국 시카고대 경제학 박사

2008년 8월~2012년 6월 세계은행 부총재 겸 수석 이코노미스트

현재 베이징대 중국경제연구소(ECCR) 소장 겸 교수(경제학과)

"전 세계 중산층 2050년까지 30억명 늘어날 것" — HSBC 2012.10.19 조선일보

전 세계 중산층(연소득 3000~1만5000달러 이상) 수가 2050년까지 30억명가량 늘어날 것이란 연구결과가 나왔다.

19일(현지시각) 블룸버그는 글로벌 금융회사인 HSBC가 내놓은 연구 결과를 인용해 "현재 전 세계 인구의 40%가량인 30억명이 2050년까지 중산층에 합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들은 중산층의 기준을 연소득 3000~1만5000달러 이상으로 설정했다. 보고서는 특히 "늘어나는 중산층의 대부분은 신흥국에서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현재 중국, 인도, 러시아 등 신흥국 가계의 소비가 전 세계의 3분의 1 수준인데, 이들의 소비가 앞으로 전 세계의 3분의 2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란 설명이다. 이들은 "중국과 인도, 러시아의 평균 실질소득은 2050년까지 각각 4%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현재 신흥국의 평균 연령이 16세부터 40세까지라는 실질인구통계 결과를 인용해 신흥국이 향후 전 세계 소비를 주도할 것으로 관측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평균 연령은 35세로 미국·유럽의 39세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반면 필리핀과 인도의 평균 연령은 각각 23세, 26세에 불과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카렌 워드 이코노미스트는 "이들 국가는 소득이 오르고 있는 나라의 일부"라며 "이들은 젊고 앞으로 소비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특히 의류 등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이런 신흥국을 겨냥해 브랜드와 평판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현재 산업화가 진행되는 국가의 기계장치 수입이 전체의 25% 수준에서 2050년에는 59%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란 설명이다. 또 신흥국의 소매 금융서비스 비중도 현재 전체의 18% 수준에서 56%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향후 글로벌 경제 질서도 재편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선진국 경제가 둔화하는 사이 신흥국 경제가 바통을 이어받아, 소비자 수요가 현재 연간 2% 성장하는 수준에서 2050년에는 연간 3%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보고서는 "이를 통해 글로벌 스태그네이션(장기 경제 침체)이 발생할 위험을 완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